

37세 노장 페더러는 '진행형'

등록 2019.04.01 09:04:26



【마이애미=AP/뉴스시스】황제 로저 페더러(5위·스위스)가 3월 31일(현지시간)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(ATP) 투어 마이애미오픈 남자 단식에서 우승,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페더러는 디펜딩 챔피언 존 이스너(9위·미국)를 2-0(6-1 6-4)으로 완파해 시즌 두 번째, 이 대회 통산 네 번째 그리고 개인 통산 101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. 2019.04.01.